

■ 온라인개학 초1 ‘학습꾸러미’ 선행유발 사례 시민제보 결과보도(2020.5.7.)

초1 학습꾸러미, 한글 등 취학 전 선행학습 유발해...

-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4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 실시 이후 초1은 4월 20일부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를 통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음.
- ▲ 그런데 ‘학습꾸러미’의 내용이, 입학 전 한글과 수 선행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라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됨.

△ 시민제보 1) ‘지나치게 긴 문장지시문, 객관식 시험 형태 문제, 추론적 사고 후 문장으로 이유 적기 활동’ 등 제시됨: 해당 학습연령에 맞지 않는 난이도의 활동으로 학부모들에게 초1부터 어려운 문장도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입학 전 한글선행교육을 시키게 되는 요인이 됨.

△ 시민제보 2) 한글교육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쓰기, 부모님 성함쓰기, 단어 읽기, 초성만으로 단어 연상하기, 자음 한두 번 쓰기 후 이중모음 포함된 단어 읽기 등 1차시에 과도한 학습량, 압축된 진도’ 활동 제시됨: 초등 입학 전 한글 선행학습을 전제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시민제보 3) ‘숫자 학습에 너무 적은 차시가 배치’되는 등 빠른 진도와 압축된 학습량: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 저하 가능성. 국어와 수학 교육과정 진도 연계 불일치.

△ 시민제보 4) 학습꾸러미 외 ‘찬찬한글’ ‘독서기록장’ 등 학생 혼자 소화해낼 수 없는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 어려운 내용의 활동지가 추가로 제공됨: 학자들이 제시하는 적절한 숙제의 양과 범위에서 벗어나며, ‘독서기록장’은 없어져야 하는 대표적인 선행유발 과제로 꼽히기도 함.

-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원격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되는만큼 교육부는 ‘제2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학습꾸러미’로 인한 학부모의 선행학습 불안감 및 학생간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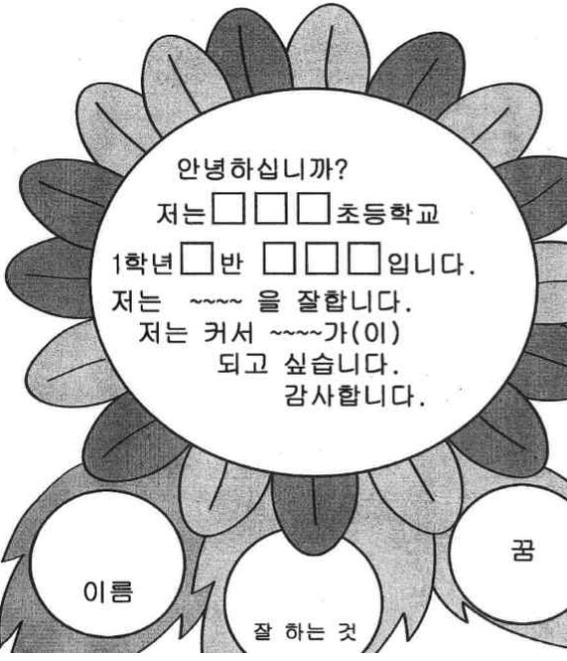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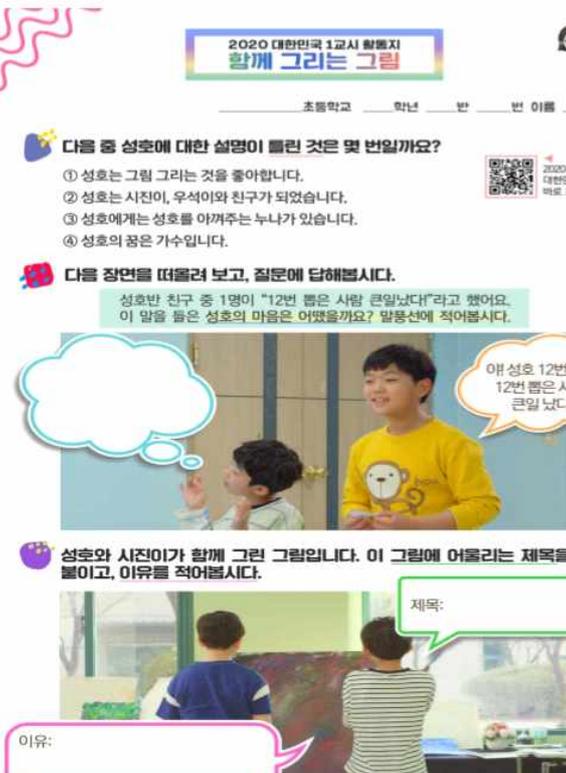
▲ 학습꾸러미로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했다 전제하지 말고, 5월 20일 등교 개학 시점부터 초1 한글 및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함. 이로써 온라인-등교 개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교육 강화를 실현해야 함.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4차례 개학이 연기된 데 이어, 지난 4월 9일 고3·중3을 시작으로 4월 20일 초1~3학년까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 초1은 저학년 특성으로 인해 EBS 방송시청과 각급 학교에서 배부한 활동지인 ‘학습꾸러미’를 통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꾸러미’의 내용이, 입학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학교교육을 경험하게 된 초1이 스스로 학습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글자수가 많거나, 한글과 수 선행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라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1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활동지인 ‘학습꾸러미’의 선행유발 사례 시민제보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보받은 학습꾸러미의 내용은 초1 온라인 개학 시작 일인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의 13일치 분량이며, 특정 학교의 경우 온라인 개학 이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4일치 분량도 포함되었습니다.

■ 시민제보 1) ‘지나치게 긴 문장지시문, 객관식 시험 형태 문제, 추론적 사고 후 문장으로 이유 적기 활동’ 등이 제시됨: 해당 학습연령에 맞지 않는 난이도의 활동으로 학부모들에게 초1부터 어려운 문장도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입학 전 한글선행교육을 시키게 되는 요인이 됨.

<p>[그림1] 1일차: 지나치게 긴 문장 지시문</p>	<p>[그림2] 6일차: 객관식 문제 풀기 활동, 추론적 사고 후 문장으로 이유 적기 활동</p>
<p>그림 1 디자인 4.20(월)3교시 1학년 (나의 소개) 이름 : _____</p> <p>★가족 앞에서 또박또박 분명한 목소리로 나를 소개해 봅시다.</p>  <p>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반 □□□입니다. 저는 ~~~을 잘합니다. 저는 커서 ~~~(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p>이름 _____ 잘 하는 것 _____ 꿈 _____</p>	<p>그림 2 디자인 4.27(월) 4교시 1학년 (함께 그리는 그림) 이름 : _____</p>  <p>2020 대한민국 1교시 활동지 함께 그리는 그림</p> <p>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p> <p>다음 중 성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② 성호는 사진이, 우석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③ 성호에게는 성호를 아껴주는 누나가 있습니다. ④ 성호의 꿈은 가수입니다. <p>다음 장면을 떠올려 보고, 질문에 답해봅시다.</p> <p>성호반 친구 중 1명이 "12번 높은 사람 큰일났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성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풍선에 적어봅시다.</p>  <p>성호와 시진이가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이유를 적어봅시다.</p>  <p>이유: _____</p>

[그림1]은 초1 학생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학습꾸러미 첫 지면입니다. 학교 공교육의 역할만 믿고 한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안내자의 역할없이 문장지시문부터 자기 소개 내용까지 6문장을 스스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이 교사나 학부모를 위한 발문이라 할 지라도, 불필요한 어려운 한글 문장들이 입학 초에 많이 수록되는 것은 미취학 예비 학부모들에게 초1부터 이러한 어려운 문장도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 취학 전 한글 선행교육을 시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초등 1학년 1학기 초에는 한글 표기를 상당부분 빼고 국어 진도에 맞추어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짧고 쉬운 단어와 문장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 가도록 교과서 및 각종 활동지의 활동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교 및 교사의 민감성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 학교의 경우 6일차에 장애인해교육 활동지를 진행[그림2]하였는데, ‘객관식 4지선다형 문제형태’가 제시되고, ‘추론적 사고 후 이유를 문장으로 적기’ 활동이 제시되는 등 아직 한글교육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초1이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내용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33분의 영상을 한자리에 앉아 시청하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에 ‘주인공의 마음 추론하기, 제목 구상하기, 제목을 지은

이유를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등의 활동은 초1 학생이 6일차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직 한글 진도도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활동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한글선행을 전제로 모든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관행들이 지속된 결과입니다. 이 활동지는 교육부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전국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활동지였는데, 이를 그대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발휘하여 초1 교육과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했었어야 합니다.

■ 시민제보 2) 한글교육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쓰기, 부모님 성함쓰기, 단어 읽기, 초성만으로 단어 연상하기, 1차시에 과도한 학습량, 빠른 진도' 활동 등이 제시됨: 초등 입학 전 한글 선행학습을 전제로 교육하고 있는 것임.

[그림3] <2019 개정 누리과정> 중 '의사소통' 영역의 '읽기와 쓰기' 관련 내용	
<p>1 목표</p> <p>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p> <p>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이해</p> <p>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유아기 일상에서 말이 글로, 글이 말로 옮겨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p> <p>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유아기 <u>일상에서 자주 보는 상징(표지판, 그림문자 등)이나 글자 읽기에 관심을 가지</u>는 내용이다. 유아기 <u>상징이나 글자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이다.</u></p> <p>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유아기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u>끼적거리거나 글자와 비슷한 선이나 모양,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는 내용이다.</u></p>

초1 한글 교육은 만3~5세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 (2020.3.1.시행)의 'II. 의사소통' 영역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 본격적인 문자교육은 실시되지 않으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 활동을 하더라도 유아의 흥미를 존중하며 '끼적이기나 글자와 비슷한 선이나 모양, 글자와 비슷한 형태' 정도로 표현해보는 것

‘가’로 시작하는 낱말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가방 거북이 공

‘다’로 시작하는 낱말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림을 색칠하세요.

도토리 다람쥐 돼지

첫소리를 보고 생각나는 말을 찾아 그림을 그리세요.

가 바

[그림8] 원격개학이전: 1차시에 자음 전체, 혹은 모음 전체를 점선 보조선없이 한꺼번에 학습

413

쪽쪽 글자 공부 자음 알아보기

색연필로 자음자를 바르게 따라서 쓰고, 5번씩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①		<읽기> 이응							
①		<읽기> 지읒							
①		<읽기> 치읓							
①		<읽기> 키읔							
①		<읽기> 티읕							
①		<읽기> 피읖							
①		<읽기> 히읗							

414

쪽쪽 글자 공부 모음 알아보기

색연필로 모음자를 바르게 따라서 쓰고, 5번씩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①		<읽기> 요							
①		<읽기> 우							
①		<읽기> 유							
①		<읽기> 으							
①		<읽기> 이							

또 개학 1일차, 2일차에 한글 자음을 몇 번 써본 후 곧바로 ‘가방, 거북이, 다람쥐, 돼지’ 등 중성 받침이 있거나, 이중모음이 활용된 단어를 읽어보는 활동[그림6], 자음을 간단히 학습 한 후 초성만으로 두글자 단어를 연상하는 활동[그림7] 등도 선행학습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한글학습이 버겁게 느껴지는 많은 학습량, 빠른 진도였습니다.

한 학교는 원격개학 이전에도 학습지 형태의 활동지를 배부하여 한글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차시에 걸쳐 여러 활동과 함께 습득해야 되는 한글 학습을 겨우 1차시에 자음전체 혹은 모음전체

를 점선보조선도 없는채로 한꺼번에 학습[그림8]하여 사교육 학습지보다 더한 학습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시민제보 3) ‘숫자 학습에 너무 적은 차시가 배치’되는 등 빠른 진도와 압축된 학습량: 수개념을 학습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 저하 가능성. 국어와 수학 교육과정 진도 연계 불일치.

[그림9] 한 지면에서 숫자 1-9까지 한꺼번에 학습	[그림10] 5일차: 숫자 '1-5'까지 한꺼번에 학습 후 기수 한글쓰기까지 학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숫자 공부</p> <p style="font-size: small;">색연필로 숫자를 따라 쓰고, 5번씩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font-size: 2em;">1</td> <td>하나 일</td> <td>1</td> <td>1</td> <td>1</td> </tr> <tr> <td style="font-size: 2em;">2</td> <td>둘 이</td> <td>2</td> <td>2</td> <td>2</td> </tr> <tr> <td style="font-size: 2em;">3</td> <td>셋 삼</td> <td>3</td> <td>3</td> <td>3</td> </tr> <tr> <td style="font-size: 2em;">4</td> <td>넷 사</td> <td>4</td> <td>4</td> <td>4</td> </tr> <tr> <td style="font-size: 2em;">5</td> <td>다섯 오</td> <td>5</td> <td>5</td> <td>5</td> </tr> <tr> <td style="font-size: 2em;">6</td> <td>여섯 육</td> <td>6</td> <td>6</td> <td>6</td> </tr> <tr> <td style="font-size: 2em;">7</td> <td>일곱 칠</td> <td>7</td> <td>7</td> <td>7</td> </tr> <tr> <td style="font-size: 2em;">8</td> <td>여덟 팔</td> <td>8</td> <td>8</td> <td>8</td> </tr> <tr> <td style="font-size: 2em;">9</td> <td>아홉 구</td> <td>9</td> <td>9</td> <td>9</td> </tr> </table> </div>	1	하나 일	1	1	1	2	둘 이	2	2	2	3	셋 삼	3	3	3	4	넷 사	4	4	4	5	다섯 오	5	5	5	6	여섯 육	6	6	6	7	일곱 칠	7	7	7	8	여덟 팔	8	8	8	9	아홉 구	9	9	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small;">약습수더미20 4.24(금)4교시 기수글쓰기교과 (숫자 4,5) 1학년 반 이름: _____</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px;">4</td> <td>○ ○ ○ ○ ○</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r> <tr> <td>4</td> <td colspan="6">사</td> </tr> <tr> <td>4</td> <td colspan="6">넷</td> </tr> <tr> <td style="width: 50px;">5</td> <td>○ ○ ○ ○ ○</td> <td>5</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5</td> <td colspan="6">오</td> </tr> <tr> <td>5</td> <td colspan="6">다섯</td> </tr> </table> </div>	4	○ ○ ○ ○ ○	4	4	4	4	4	4	사						4	넷						5	○ ○ ○ ○ ○	5	5	5	5	5	5	오						5	다섯					
1	하나 일	1	1	1																																																																																				
2	둘 이	2	2	2																																																																																				
3	셋 삼	3	3	3																																																																																				
4	넷 사	4	4	4																																																																																				
5	다섯 오	5	5	5																																																																																				
6	여섯 육	6	6	6																																																																																				
7	일곱 칠	7	7	7																																																																																				
8	여덟 팔	8	8	8																																																																																				
9	아홉 구	9	9	9																																																																																				
4	○ ○ ○ ○ ○	4	4	4	4	4																																																																																		
4	사																																																																																							
4	넷																																																																																							
5	○ ○ ○ ○ ○	5	5	5	5	5																																																																																		
5	오																																																																																							
5	다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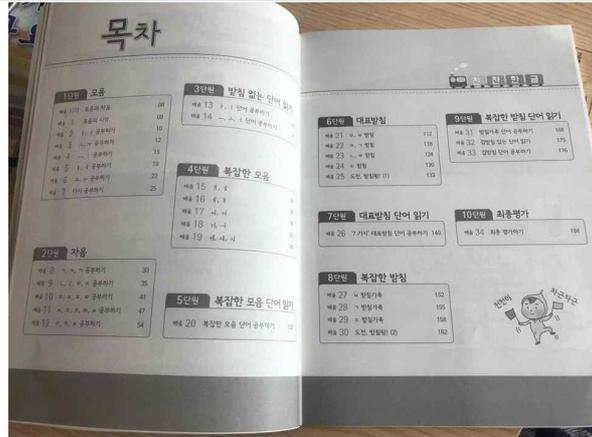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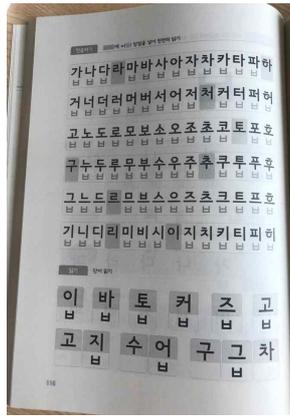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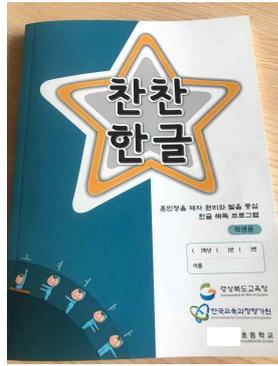
한글 교육 뿐만 아니라, 수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수 학습’에 있어서도 빠른 진도와 압축된 학습량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 학교는 원격개학 시행 이전 배부된 활동지에서 여러 차시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습득해야 되는 숫자 학습을, 겨우 1차시에 숫자 1~9까지 한꺼번에 3번씩 써보는 것[그림9]으로 학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초1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생활 혹은 실물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접목하는 활동은 철저히 배제된 채, 수개념을 학습으로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큼니다.

또 한 학교는 숫자 기수의 한글 형태, 한자 형태를 한꺼번에 가르치면서, 아직 한글교육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어형태로 숫자쓰기 교육을 시행[그림10]하였습니다. 초1 국어 교육과정과 수학 및 타 교과와의 교육과정 연계 불일치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습니다. 국어시간에는 이제 겨우 ‘ㄱ, ㄴ...’ 초성을 배우고 있는데, 수학시간에는 ‘여덟, 아홉...’ 접받침있는 두글자 단어쓰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1,2학년 수학교과서가 △한글 기초 교육을 강화한 2015개정 국어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어려운 수준의 문장들이 다수 기술되어 있고, △초등입학 전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과 빠른 진도로 기술되어 있고, △그림과 삽화의 크기가 너무 작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수학익힘책이 △문장이 길고 지시문이 많아 학부모의 도움과 선행학습없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고, △해당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와 상위 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시민제보 4) 학습꾸러미 외 ‘찬찬한글’ ‘독서기록장’ 등 학생 혼자 소화해낼 수 없는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 어려운 내용의 활동지가 추가로 제공됨: 학자들이 제시하는 적절한 숙제의 양에서 벗어나며, ‘독서기록장’은 없어야 하는 대표적인 선행유발 과제로 꼽히기도 함.

[그림11] 가정에서 개인과제로 학습 후 등교 후 제출하도록 한 한글학습 책



[그림12] 초1 학생이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독서기록장의 본문 내용 일부

6-1 나만의 독서 다짐

저는 아래의 약속을 지키며 독서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1. 하루에 () 시간 이상 꼭 책을 읽었습니다.
2. 한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3. 1년 동안 ()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4. 빌린 책은 날짜를 이기지 않고 책이후에 반납하겠습니다.
5. 읽은 책은 독서 기록장에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 ()반 ()

6-2 독서 생활에 임합니다.

1. 책과 친한지
2. 독서 생활은 왜 소중하냐
3. 좋은 책을 골라볼 때의 원칙
4. 책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
5. 책 속에 담긴 내용을 보려고 읽지
6. 나의 생활과 연관지어 읽는다
7. 나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8. O 읽은 책은 재치있게 두자

6-3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1. 독서 감상문이란?
2. 독서 감상문은 왜 쓰나?
3. 독서 감상문을 잘 쓰려면?
4. 글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독서 감상문 쓰기

5. 독서 감상문 쓰는 순서

- 1단계 책의 줄거리
- 2단계 처음 부분 쓰기
- 3단계 가운데 부분 쓰기
- 4단계 끝부분 쓰기

6-4 독서 후 할 수 있는 활동 (1)

- 1) 이야기로 되어 있느냐
- 2) 책의 줄거리
- 3) 인상 깊은 장면 그려기
- 4) 만화도 표현해
- 5) 생략 구절 만들어
- 6) 독서 시 쓰기
- 7) 등장인물 배역 바꿔 생각해
- 8) 독서피해 만들어
- 9) 이야기의 결을 바꿔
- 10) 독서곡 만들어
- 11) 책 광고 만들어
- 12) 책 읽고 느낀 것 쓰기
- 13) 인상 깊은 구절 대본으로 만들어
- 14) 등장인물과 자신대화 만들어
- 15) 등장인물과 자신 연하장 쓰기
- 16) 독서 생활시 쓰기
- 17) 작가가 되어 생각해
- 18) 책 속의 내용 바꿔 쓰기
- 19) 책 내용으로 노래 가사 쓰기
- 20) 좋은 구절 발표로 만들어

독서 후 할 수 있는 활동 (2)

- 21) 책장 꾸미기
- 22) 책 다짐 만들기
- 23) 독서 열서 쓰기
- 24) 등장인물 분석하기
- 25) 등장인물에 상상 또는 별칭 만들어
- 26) 작가 소개 만들기
- 27) 신문기사 쓰기
- 28) 이야기 안에서 만들기
- 29) 인물 사다리
- 30) 독서 신문 만들기
- 31) 나의 독서 생활에 대해
- 32) 나의 독서 생활에 대해
- 33) 생동감 있는 나의 이야기
- 34) 독서 노트
- 35) 책 내용과 연관된 속담 찾아 쓰기
- 36) 등장인물과 나의 일과 같은 일 쓰기
- 37) 등장인물과 나의 일과 같은 일 쓰기
- 38) 등장인물과 나의 일과 같은 일 쓰기
- 39) 책 읽고 등장인물과 나의 일과 같은 일 쓰기
- 40) 작가가 되어 생각해

21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편지 쓰는 방법: 20...
시간이

원래: 1. 인상 깊은 단락을 인용하고 어떤 문장을 인용할지 생각해 주십시오.
2. 책 속의 단락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하여 다른 단락을 비교해 봅니다.
3. 자신이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봅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는 ‘찬찬한글’ 책 한 권을 과제로 부여[그림11]하며 이를 가정에서 다 학습한 후 등교시 제출하도록 했는데, ‘훈민정음 원리에 의한 한글 해독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학부모들에게도 생소하고 방대하여 버겁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한글책임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학교는 그 책임을 가정으로 돌린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담없이 스스로 하는 숙제의 범위와 양’은 ‘10~20분 정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서울시교육청, 2016)를 의미[그림13]합니다.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찬찬한글’ 전체 책 한권을 가정 학습 과제로 던져주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부여 관점에서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며, 선생님의 지도 등 적절한 학교교육과정과 함께 보조적으로 부여되는 수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학교는 1년 동안 사용할 독서기록장을 미리 가정에 배부하였는데, 독서기록장에 ‘책이름, 느낌 및 감상 문장으로 적기’ 등을 600권까지 채우도록 되어있어 초1 학생이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읽기 쓰기가 유창하지 못한 초1 학생의 수준에는 ‘독서감상문 쓰기의 방법, 순서, 독후활동’들이 너무 어려워, 학생스스로 해낼 수 없는 ‘부모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림12].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안성맞춤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숙제가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없어져야하는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대표적 과제로 ‘독서록 쓰기’를 예시로 꼽았지만[그림14], 여전히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독서기록장 쓰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림13] 숙제의 범위와 양은 ‘10~20분 이내’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림14]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선행학습 유발 대표적 과제 ‘독서록 쓰기’
<p>초등학교 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 Q&A</p> <p>부담 없이 스스로 하는 숙제의 범위와 양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p> <p>학습과 관련된 것은 학생 스스로 10~20분 정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학생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고 도전과 성취,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제를 말합니다.</p>	<p>초등학교 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 Q&A</p> <p>‘없애고자 하는 숙제’는 무엇인가요?</p> <p>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는 숙제나 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숙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를 말합니다. 예) 받아쓰기 00번 연습해오기, 동화책 읽고 독서록 쓰기, 수학익힘책 풀고 채점해오기, 생활본 00쪽 정리하기 등</p>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원격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되는만큼 교육부는 ‘제2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학습꾸러미’로 인한 학부모의 선행학습 불안감 및 학생간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을 방치해서는 안 됨.

2018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한글책임교육 학부모 인식 변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취학 전 한글교육 했다’는 비율이 미취학 아동 84.5%, 초1 89.8%로 10명 중 9명은 취학 전에 한글 선행교육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학 전 한글 가르치는 이유’ 1위는 ‘초1 적응을 위해서’ (41.3%)로 나타나 절반 가까운 학부모가 취학 후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2017년부터 적용)이 적용된 2017년부터 ‘한글책임교육(주요내용: 한글교육시간확대 27→68시간, 1학년 1학기 한글교육시간 51차시 집중배치, 무리한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일기쓰기 지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안성맞춤 교육과정(주요내용: 선행학습 필요없는 쉬운 한글, 재미있는 수학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하는 숙제가 없는 학교 추진)’ 추진계획을 발표(2016.8.31.)했지만[그림15], ‘한글책임교육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초1 학부모는 64.7%로, 실제로는 여전히 한글책임교육 강화와, 수학교육과정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현장개선 체감도 긍정 비율을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책임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15] 한글책임교육 강화를 약속하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홍보자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19. 10. 4.(금) 배포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	2019. 10. 7.(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6.(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과서정재과	담당자	과 장 김영재 (☎ 044-203-6477) 교육연구사 육인경 (☎ 044-203-7035)
교육부, 초등학교 한글 책임지고 교육하다			
◆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1:1 맞춤 한글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보도자료	
보도일시	제공 이후	<input type="checkbox"/> 총 배수 : 2쪽	<input type="checkbox"/> 첨부: 사진 3매
배포일시	2019. 10. 8.(화)	작성부서	유초등교육과 과장 신명희 담당자 장학사 이민정
자료문의	☎ 044-320-2123(담당자)	☎ 044-320-1113(공보담당)	
한글은 학교에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 세종시교육청, 「2019 한글책임교육 공감 한마당」 개최 - - 아이의 성장에 맞는 교육, 한글은 1학년이 교육 적기 -			
경북교육청, '쉽고 재미있게' 맞춤형 한글 책임 교육 실시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07일 17시 2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 10면			
초등학교 1학년 교육시간 기준 27시간→62시간 대폭 확대 체계적 학습내용 교과서에 담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원격수업은 비록 등교하지 않더라도 수업시수로 인정되는 엄연한 정규수업입니다. 교육부는 제2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학습꾸러미’가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한글 및 수교

육에 대한 선행학습 불안감 및 조바심을 유발하고, 각 학교마다 학습 수준과 범위의 편차가 극명한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각급 학교의 학습꾸러미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습 꾸러미로 학생들이 충분하게 학습을 했다고 전제하지 말고 5월 20일 등교 개학 시점부터 초1 한글 및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더욱 철저한 현장 실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온라인-등교 개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확인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공교육의 역할을 다하고 책임교육 강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2020. 5.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02-797-4044, 내선512)